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거점 세척·소독시설
전국 방역담당자 현장견학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17일(목) 구제역·A형 등 각종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발생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전국 방역담당자를 대상으로 ㈜반석LTC(충북 음성군 소재)에서 우수 거점 세척·소독시설 견학을 추진했다.

이번 현장견학은 지난 겨울 구제역·A형이 발생한 지자체뿐만 아니라 비발생한 시·도 및 시·군 등 전국 방역 담당자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거점 소독 시설 운영 및 소독 기준 제공 등 현장방역 체험을 통해 방역효과를 극대화했다.

또한 이번 견학장소인 ㈜반석LTC는 표준화된 터널형·벽체형 소독시설이 설치돼 있어 지자체별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이번 견학에서는 외부전문가를 초빙해 '효과적인 소독시설 설치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 방역담당자들의 토의를 통해 기존 거점소독시설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또한 도출된 개선안은 구제역·A형 방역대책(18.6월)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소독시설 지원사업 등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현장견학을 통해 더욱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역이 이뤄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방역담당자 뿐만 아니라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농가 소독 요령 등 현장 방역교육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
5종 가축방역사업 추진결과 공유



농림축산검역본부는 5월 2일(수) 동물질병진단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동물질병 진단과 5종 가축방역사업 추진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자문위원회에서는 가축방역사업* 추진결과에 대한 검역본부 관계관의 발표에 이어 최근 축산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질병의 효율적인 진단과 관련 업무 강화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 인수공통전염병 유사산 원인체 조사, 소 모기매개 바이러스성 질병 혈청검사, 소바이러스성실사 검색 사업, 전국 단위 돼지질병 발생 조사 및 평가, 광견병 혈청검사

광견병 등 야생·산업동물간 매개 가능 질병의 진단, 예찰 결과에 대해 환경부와 자료 공유, 사육두수가 급증하는 말·염소 등에 대한 질병의 모니터링, 기술개발을 포함한 연구 필요성 등이 제기됐다.

검역본부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현장과 학계의 동물질병진단전문가와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함으로써 정확한 진단과 신뢰받는 방역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며, 진단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기술적 지원활동을 통해 민·관 협업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전국 42개 농촌마을대상 봉사활동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5월 11일(금) 충북 보은 양지마을을 찾아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에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임직원 및 마을주민 등 30여명이 참여해, 마을 공용컨테이너와 탁자·벤치 등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고 마을길의 제조작업을 하는 등 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캠페인에 참여한 박주환 전무이사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에 적극 참여해 국민이 찾아오는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는 전국 42개 농촌마을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농촌 만들기 캠페인을 추진 중에 있다.



농촌진흥청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유관기관과 협조...신속대응 최선

농촌진흥청은 5월 18일(금) 국립농업과학원 본원에서 육군35사단 2대대와 완주군청, 전주완산소방서, 전주완산경찰서, 한국통신,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조해 '2018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마쳤다.

이번 훈련은 건물 내 화재, 실험용 화학물질 및 농업해충 유출, 부상자 발생 상황 등에 대비해 초기 대응력을 키우고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하게 구조·구급 활동을 벌여 상황을 수습하고 복구하고자 실시했다.

먼저, 진행된 토론 기반 훈련에서는 유관기관들과 태풍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의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과제 토론을 통해 재난 대응의 문제점과 쟁점을 찾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어 태풍 '고니'로 인한 집중호우와 강풍이 발생해 국립농업과학원 본원의 실험실이 파손되고, 침수와 누전으로 인한 화재 상황을 가정했다. 또한, 실험용 화학물질 유출과 해충 연구동 시설 파손으로 인한 농업해충이 유출된 상황도 훈련에 포함됐다.

직원들은 상황 발생을 인지한 즉시 대피 요령에 따라 신속히 건물 밖으로 이동하고, 농촌진흥청 자위소방대원들은 역할을 나눠 유관기관에 상황을 전달함과 동시에 직원 대피 안내, 초기 화재 진압에 나섰다. 이후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진행하고, 오염 지역에 중화제를 뿌리고 해충 포집과 공동 방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시설물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긴급 보수를 실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 생산단계 안전관리 강화
현지실사 기피업체 수입중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출국 식품제조업체 현지실사를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출국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현지실사 방해·기피 업체 수입 중단 조치 근거 마련, 축산물 해외작업장 현지실사 규정 개정, 수출식품 지원을 위한 해외등록 지원 업무 신설 등이다.

현지실사 과정에서 일부 제조시설을 고의로 폐쇄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실사를 여러 번 연기하는 등 현지실사를 방해할 경우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축산물을 우리나라로 수출하기 위해 해외작업장 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도 등록 전에 현지실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국에서 요청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관리제도 등의 정보 제공과 수출제조업소 및 수출작업장의 해외 정부 수출업소 등록을 지원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이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내 식품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청년 창농으로 찾는 농촌 활력
생생현장토론회 개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청년 창농으로 찾는 농촌 활력'을 주제로 5월 9일(수) 전남농업기술원에서 개최한 2018년 제1차 KREI 생생현장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 모인 참석자들은 농가경영주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40세 미만의 청년 농업인을 육성·지원하는 것은 농업의 경쟁력 유지와 농촌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이라는 데 공감했다.

마상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 창농으로 찾는 농촌 활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재 청년농 육성체계는 정책, 사업, 주체는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의 정착 실태를 살펴본 결과, 신규 창업농과 승계 창업농의 영농 차이, 창업농들의 경영 및 삶의 질 상황이 호전되는 시점(영농 경력 3년 전후)을 구명했다. 이후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주재로 토론이 이어졌고, 청년리포터 발대식도 가졌다. 향후 연구원은 전국 농업·농촌 현장의 청년 20명으로 구성된 'KREI 청년리포터'와 소통하며 현장성 있는 연구를 기획·수행할 계획이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식품안전문화 정착 위한
HACCP홍보 공동캠페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5월 9일(수)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홈플러스와 함께 식품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HACCP 홍보 캠페인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HACCP홍보 공동 추진 MOU는 HACCP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를 높이고, 소비자 스스로가 식품을 구매할 때 HACCP마크를 확인하는 것을 생활화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식품업체의 HACCP 인증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해섭(HACCP)은 식품과 축산물의 원재료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까지 위해물질이 섞이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다.

특히 이번 HACCP 홍보 캠페인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교류의 장인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와 HACCP 인증업체, 유통업체가 함께 소비자들이 식품을 구입 시 HACCP 인증제품의 구입을 유도하는 범국민적 식품안전 실천문화 확산에 함께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국민 참여와 소통을 위한
제1차 CEO혁신자문위원회 출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5월 18일(금) 서울 프리아 호텔에서 열린 혁신을 위한 제1차 CEO 혁신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aT는 국민의 눈높이로 소통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업계, 시민단체, 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분야의 관계자 20명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울러, 농산물 수급안정 등 7개 주요사업과 11개 지역본부별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총 380여명의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함으로써 대국민 소통과 지역사회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날 혁신자문위원회에서는 공사 창립 51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aT가 나아갈 방향을 토론했고, 수렴된 의견들을 향후 경영방향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이병호 aT 사장은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한 혁신자문단의 고견과 조언을 경청해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균형적 시각과 실행력을 확보하겠다”며 “앞으로도 말뿐인 혁신이 되지 않도록 열린 소통을 통해 농업인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